욥기

30회: 욥기의 적용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30회 욥기 적용입니다.

소개: 적용, 행동 포인트가 아니라 생각 포인트 [00:23-1:53]

그럼 마지막으로 욥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욥기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청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행동 포인트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우리의 행동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적용에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포인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대신 사고 포인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성경이 이번 주를 위한 빠른 해결책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스며들어 실제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만큼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A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나의

행동 포인트에 대한 약간의 전략을 세우는 대신 어떤 일이 닥칠지 대비할 것입니다.

고난에 대비함 [1:53-4:20]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같은 것에 관해서는 삶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그날 마라톤을 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다. 콘서트 피아니스트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콘서트장에 들어와서 복잡한 곡을 악보로 읽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준비입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우연한 사건,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에 대비해야 합니다 . 그것이 당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정말로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운전을 시작할 준비를 했을 때, 나는 아이들이 타이어 교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도움 없이 어둡고 버려진 도로를 따라 어딘가에서 타이어가 펑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 그래서 우리는 진입로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날을 선택하고 타이어 교체 방법을 배웠습니다.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십시오. 가끔 저는 욥기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통을

겪기 시작했을 때 읽기에 좋은 책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책이 제공해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너무 참을성 있게, 거의 지루하게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집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그러한 사고 포인트를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이해의 저장소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4:20-5:01]

자, 그것에 대해 좀 이야기해 봅시다. 책이 위로를 주는가? 그것은 확실히 그 의도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친구나 가족이나 야훼에게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설명이나 답변으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원이 있더라도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책은 위로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욥이 수용을 가르치고 생각할 점을 격려하다 [5:01-7:46]

위로의 대안은 책이 우리가 수용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용은 우리의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한 수정된 관점을 얻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실제로 팔 길이로 잡을 수있는 것으로 줄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제의 한계 , 하나님의 통제의 조건,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거나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명에서 위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방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희망과 신뢰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련의 행진 명령, 개선 적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패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금융 위기에서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청구서의 혼란을 따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배우고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포인트는 내가 건설적인 적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을 생각하는 길 , 좋은 사고 습관과 일상에 들어가는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평생의 내적 자원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금융 위기에서 미결제 청구서를 지불하는 대신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미래를 위해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입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은 피카유네가 아니다 [7:46-8:59]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신은 피카유네가 아니다. 물론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최근에 평생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불치병의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어떻게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간의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생애를 하나님께 대한 이타적인 봉사에 바쳤고, 하나님이 피카유네라는 약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으시다 [8:59-9:18]

신에 대한 또 다른 생각 포인트는 우리가 이미 몇 번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를 나쁘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신은 카오스 피조물이 아니다 [9:18-9:53]

또 다른 생각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의적이기보다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하다기보다는 선하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남용하기보다는 우아함을 과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은 강력하고, 짓궂고, 제멋대로이고, 비도덕적이며, 본능과 이기심에 이끌리는 혼돈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신은 혼돈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용으로 우리 자신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9:53-10:13]

또 다른 생각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용으로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우리의 삶과 생각에 흡수해야 합니다.

신을 조종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10:13-10:51]

신을 조종하는 것은 항상 나쁜 생각입니다. 항상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림은 결국 하나님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짓과 부름에 있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은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던짐으로써 하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약속이 아닐 것입니다. 또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무죄를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구석에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10:51-12:44).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시간에 우리가 지정한 메커니즘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구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이런 종류의 응답을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 치유, 인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로부터의 치유보다는 육체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도록 하기보다 우리가 보기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하도록 그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결국,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 제 뜻이 아닙니다.

사심 없는 의[12:44-14:55]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그분을 섬기고 영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기도입니다. 자, 이 사심 없는 의로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욥은 그런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와 충성은 사심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를 모두 잃어버리고 미래의 축복,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성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분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혜택이 없다면 우리가 그를 섬길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에 상품이 있는 라이드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을 수반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국 사업의 파트너인 하나님과의 관계, 소명과 관계에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 일하는 하나님 왕국의 동반자를 제공합니다. 그 관계는 천국까지 보류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에 묶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15 고난의 상황에서 소망을 위한 답 [14:55-16:55]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고 너희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나는 우리가 종종 그 구절을 변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사용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에 대한 이유와 해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구절이 말하는 것이 아니며 문맥이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보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희망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지금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삶이 엉망진창일 때 어떻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 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믿음의 반응 [16:55-17:41]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더라도 그분께 통제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우리는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추구하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설명이 있다고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 신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혜택에 근거하지 않는 의를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세합니다. 신뢰만이 가능한 유일한 반응입니다.

판잣집: 하나님은 선하시다 [17:41-20:25]

이것은 The Shack이라는 제목의 William Paul Young의 논란이 많은 소설에서 매우 통렬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많은 것들이 있으며,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이 제공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신의 모습이 고통받는 캐릭터에게 말하는 것처럼 책의 끝에서 두 개의 짧은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배운 것에 비추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현실에 대한 아주 작고 불완전한 그림을 바탕으로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상처, 고통, 자기 중심, 권력의 작은 매듭을 통해 행진을 바라보며 당신이 이 모든 생각에는 강력한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고통과 죽음을 궁극적인 악으로

보고, 신은 궁극적인 배반자이거나 기껏해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조건을 지시하고 내 행동을 판단하고 나를 찾습니다. 유죄. 당신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결함은 당신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고 모든 의미, 끝, 개인 삶의 모든 과정이 내 선함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을 항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를 신뢰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겸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뢰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뢰는 다음과 같은 관계의 열매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줄을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ROM. 11:33-35: **그의 지혜의 깊이**[20:25-23:05]

강력한 통찰력.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35절의 잘 알려진 구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송영이지만 욥기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으면서 확장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것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의 깊이를 어떻게 표제로 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줄을 보십시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도다." 판단, 그것이 그의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도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은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

논리적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음 위대한 단계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입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는 누가 그의 조언자였습니까?" 잠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에게 조언하고, 더 나은 방법을 말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누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였느냐"는 요점으로 귀결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찬송으로 끝맺습니다. -- 신뢰하다.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욥기 적용 30회입니다. [23:05]